
'19년 3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2019.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19년 제3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10. 25.(금) 15:00~17:00
-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 참석위원 : 13명
 - 강영욱 위원, 김태진 위원, 노석준 위원, 문현준 위원, 박지환 위원, 이재용 위원, 이정훈 위원, 임규건 위원, 신희철 위원, 오영현 위원, 김호평 위원,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 ※ 배석 : 통계협력단장,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전관련 팀장·주무관 13명
- ◆ 진행순서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안) 관련 자문
 -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사업 자문
 - 빅데이터 캠퍼스 활용 확대 관련 자문
- ◆ 상정안건
 - 토론(자문) 3건
 -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안) 자문
 - ▶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사업 자문
 - ▶ 빅데이터 캠퍼스 활용 확대 관련 자문
- ◆ 회의결과 : 붙임 참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진행순서, 참석위원 등 소개

〈위원장〉

참석위원 환영 인사말씀, 회의록 서명위원(김태진, 노석준 위원) 선출,

안건#1,2,3 : S-Net 구축(안),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캠퍼스 확대 추진

〈위원장〉

자문안건 3건을 일괄 보고 후 토론 진행토록 하겠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안) 보고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빅데이터 캠퍼스 확대 운영 계획 일괄 보고

〈○○○ 위원〉

서울시 발표내용을 보면 항상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 추세는 시민이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 있음

- 공공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단지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데이터도 확보하고 분석하여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측면도 있음. 제주도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사용자(관광객) 접속정보를 활용하여 관광객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음. 그 지역에 대한 실시간 분포는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의 확보는 1) 인프라 투자에 대한 최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표현할 수 있고, 2) 확보된 데이터 자체가 2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 빅데이터 통합관리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형태인데, 새로운 신규산업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창출하고 있는 주 데이터를 보면 실시간 현상 데이터들임. 앞서 얘기한 와이파이 연동한 데이터나 민원데이터가 좋은 예임. 부서별 데이터의 순차적 통합과 더불어 데이터 활용성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음
- 데이터의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데이터 유통 시 데이터의 파기 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파기가 불가능함. 이런 신기술들을 활용할 때 파기 외에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함.

〈○○○ 위원〉

- 오늘 보고해 주신 계획은 꼭 실행되었으면 좋겠음. S-Net의 경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으고 보완해서 구축하는 것이고, 구축 후 유지보수 등 관리도 중요함. 과정에서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
- S-Net과 더불어 공공 IoT도 추진하시는데, 배터리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통신연결을 수립하는 IoT 기기의 특성 상 공공 와이파이의 수요가 몰리면 센서 데이터 수합이 안될 수도 있으니, 향후 백본이 잘 정비가 되면 고정 아이피를 준다든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통신을 고려하면 좋겠음

〈○○○ 위원〉

- 서울시 전역 와이파이 제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서비스 발굴이 더 중요함.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지하철 적자 등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혜택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파이의 경우도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임
- 빅데이터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빅데이터담당관) 3년 280억원임

〈○○○ 위원〉

- 통합은 Collection도 되지만, Integration이라는 의미도 있음. 시민, 기업, 주소, 시설물, 주택 등 시를 대표하는 Entity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한 주택인데, 세무, 수방 등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어, 하나의 Entity Numbering을 통한 통합이 필요함. 기업에서는 360도 싱글뷰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는 개인에 대한 것인지, 기업·사업체 등 경제적 Entity도 해당되는 건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Entity에 대한 계획은?

〈빅데이터담당관〉

- 기업·사업체 등 경제적 Entity는 개인정보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식별화를 통해서 개방되는 형태로 일단 통합저장소의 1번째 구획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전체 Entity에 대한 표준화는 1단계 사업 진행 시 전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여 계획 수립 예정임

〈○○○ 위원〉

- 서울시 S-Net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임. 데이터는 지역,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와이파이망을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지 조금 더 상세하게 고민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안이 많이 나올 것 같음. 즉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행동데이터를 분석(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하면 더 좋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 IoT관련 LoRa망은 비면허이기 때문에 자가망으로 구축 가능하지만, 통신이 잘 안되는 현상이 가끔 발생했고, 사물인터넷 관련 선도적 방식이긴 하지만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칩 제조사가 한 곳 뿐임. 이러한 단점 극복 및 새로운 서비스 확장성 등도 고려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관련은 모든 기관, 회사의 Top Topic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있게 만들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음. 관공서의 데이터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많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해를 끼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례 등을 잘 벤치마킹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잘 관리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실제 취약계층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기술적으로 IoT, 와이파이드 Priority를 줘서 서울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음. 통신기본권 등과 같이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IoT센서 관련하여 OCF표준, 전력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LoRa망으 구축할 예정임. 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기술)이 나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음.
- 와이파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량, 이동경로 등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유지보수 등도 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면 효율적이고 보안도 강화할 수 있음

〈○○○ 위원〉

- 이번에 광화문, 서초동 집회 등에 서울시에서 생활인구데이터를 만들어 과학적으로 공표한 것을 보고 굉장한 자부심이 들었다. 계속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서울시는 굉장히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결국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꽃을 피울 수 있음. 스마트 횡단보도 등 이런 서비스를 실행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 인프라와 함께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 그러려면 고정형 데이터의 단순 현행화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와 AI 기반 예측에 대한 전략도 포함되어 같이 논의되면 좋을 것 같음.

- 데이터를 쓰는 쪽(부서, 기관, 학교 등)에서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 지 요구사항을 듣고 통신데이터, 교통데이터 등 실시간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쪽으로 진화하면 좋겠음.

〈○○○ 위원〉

- S-Net,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 다만,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데이터 활용 측면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설계했으면 좋겠음.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분들을 위한 서비스 발굴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단계별 통합관련 해서, 연차별 통합 순서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생명과 연관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과급력 등 의미가 클 것 같음

〈○○○ 위원〉

- S-Net 좋은 생각인 것 같음. 에너지 환경분야라는 사용자 측면에서도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통신에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공공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면 서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이런 측면에서 각 도메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발굴한 것인지를 고민해 주었으면 함
- 빅데이터 캠퍼스 등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서 가진 데이터가 다 오픈된 게 아니다 보니 필요한 게 없는 경우도 있음. 공유하고 오픈하는 형식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고민하면 수요측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질 것임

〈○○○ 위원〉

- 시의원으로서 행정적 관점에서 집행부가 만든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와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임. 빅데이터의 활용방안도 행정적 관점에

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함. 통합 저장소의 순서도 사업적 용도가 아니라 행정적 용도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벗어날 수 없고, 서울시가 직접 활용하지 않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판매금액에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음

〈○○○ 위원〉

- 공공와이파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익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잘 하기 위해서 처음 접속 페이지에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여 어떤 공익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잘 안내를 하는 등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이용 수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공익목적의 실종아동 찾기, 민주주의 서울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임
- 빅데이터 캠퍼스 협력강화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도 같이 협력을 하였으면 좋겠음

〈○○○ 위원〉

- 두 가지 사업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
- 통신인프라가 LTE, 5G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요금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와이파이를 필요없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음. 에스넷의 주요 목표는 공공와이파이를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인프라 설치 및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파이를 활용한 서비스 중심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빅데이터저장소와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다모여 차세대 서비스를 개발되게 하려면 빅데이터 플랫폼이 AI플랫폼화되는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코펜하겐 사례를 보면 데이터 마켓, 레이크라는 컨셉으로 시작했음.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도시의 공통점을 생태계를 잘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이었음. 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과제 발굴 등도 중요한 것 같음. 디지털재단, 시립대, 민간기관이 잘 협력하는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보았으면 함
- 내년엔 향후 5년간의 서울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 뉴욕, 바로셀로나 등 요즘 디지털권리(Digital Right)가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S-Net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 어떤 거버넌스로 갈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할 것임. 위원님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와이파이는 접속 위치정보는 30M 반경 이내므로 더 정밀하다는 장점도 있어 실시간, 생명, 안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센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속도문제도 와이파이6에서 많이 개선되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스마트도시정책관〉

- 두 사업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에서 무엇을 보완하고 당초 설정했던 어떤 부분들은 걱정했구나라는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음
- 디지털 권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삶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보화기본법에서도 정보접근의 제약 해소를 공공의 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 통신기본권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S-Net에 대한 방향을 잡았음.

- 전체회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면담, 분과별 자문모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녹여갈 수 있도록 하겠음
- 빅데이터 캠퍼스 확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학교에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교수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람

<위원장>

- 이상으로 제3차 정기회의를 종료하겠음